

보도설명자료

(‘21. 6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도 정유사가 알뜰주유소 계약을 연장한 것은 정부의 압박이 주된 원인이란 내용은 사실이 아님(아주경제, 6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알뜰주유소 구매 계약에 관한 옵션실행권은 정유사가 가지고 있으며, 정유사의 필요에 따라 석유공사-정유사간 협의를 거쳐 연장한 것임
- ◇ 6.2일 아주경제 <SK에너지·에쓰오일, ‘알뜰주유소’ 공급사 2년 연장 키로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SK에너지와 에쓰오일(S-Oil)이 알뜰주유소 1부 공급사 지위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낮은 수익성이 예상됨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정부의 압박이 주된 원인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공급사(SK에너지·S-Oil)와 석유공사 간 체결한 “석유공사 구매공급 계약 (‘19.8.5일)”에 따라 계약연장에 관한 옵션실행권은 기존 공급사가 가지고 있으며,
 -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정유사는 계약당사자인 석유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였음
 - 산업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, 공급사와 알뜰주유소 연장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 바 없음

※ 문의: 박덕열 석유산업과장(044-203-5220) / 정다연 사무관 (5225)